

# 곡성 미실란 쌀가공품 대미 수출길 열어



곡성군과 미실란(대표 이동현), 농촌진흥청(청장 리승용)은 식량작물 수출생산 시범단지를 조성하여 상반기 쌀을 이용한 가공품·유기농 밭이현미·미숫가루를 미국에 1.5톤 수출했다고 밝혔다.

(주)미실란은 유기농 밭이현미·미숫가루 등을 개발해 백화점, 친환경 농산물 판매장, 자체 유통망 개척을 통해 쌀가공 회사와 협약을 맺는 등 국내 판매망을 확보한 데 이어, 본격적으로 수출시장에 뛰어들었다.

수출생산 시범단지 조성해 미국에 1.5톤 수출

유기농 밭이현미·미숫가루·이유식 등 연구

한 입상실험과 수출용 가루식품 연구개발 중이다.

군은 쌀값 하락으로 인한 소득보전과 수급안정화를 위해 50㏊ 규모로 식량작물 수출생산 시범단지를 조성하여 친환경농산물인증 필자에게 심광미, 유색미, 백옥찰리를 재배하여 생산된 쌀을 이용하여 쌀가루, 빵, 밭이현미 가공품을 만들어 판매할 예정이다.

하편 농촌진흥청, 미실란, 농업기술센터와 공동으로 쌀가루 전용 품종을 선발하기 위해 시범단지 내에 품종비교 시험포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주)미실란은 농촌진흥청과 aT 한국농수산유통공사, 꽃피는아침마을

등과 협력하여 쌀을 이용한 가공품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 향후 미국의 수출증대는 물론 중국, 싱가포르 등 까지 점차 넓혀갈 예정이며, SNS를 통한 국내 판매 비중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이제까지는 쌀 가공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지만 중국 부유층, 유아를 대상으로 고품질 유기농산물을 이용한 이유식, 선식, 미숫가루 등을 개발해 중국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며, “앞으로 대 중국시장 여전히 개선되면 수출량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곡성=김광희 기자



## 몽골 의료관계자 목포에서 의료관광

26일부터 29일 백년로 메디컬스트리트·항구축제 등 방문

몽골 의료관계자들이 목포를 방문한다.

목포시에 따르면 몽골 현지 병원장 등 의료관계자 20여명은 오는 26~29일 3박4일 일정으로 목포를 방문한다.

군 관계자는 “이제까지는 몽골 의료관계자들이 목포를 방

문을 준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시는 백년로 일대 의료관광거리의 의료기관 탐방 및 의료상품 안내, 약 검진 등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수도권과 비교해 월등하게 저렴한 수가(검진비 등) 등 목포권 의료기관의 장점을 최대한 알리고 선진의료 시스템을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몽골 방문단은 오는 27일 개막하는 목포항구축제에 풍어파시 길놀이 페와 함께 걸어서 입장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관람하고, 요트승선 체험 춤추는 바다분수 관람, 간바위 악령투어 등 관광 일정을 소화한다.

시 관계자는 “몽골로 들어가 목포의료관광 홍보 전도사가 될 수 있도록 몽골 의료관계자들에게 의료와 관광에 대해 깊은 인상을 남기겠다”고 밝혔다.

## 담양군 “흡연예방, 인형극 통해 배운다”

###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동물 캐릭터 인형 등장

담양군은 최근 담배의 해로운 점을 알리고 가정 내 금연문화 정착을 위해 어린이집, 초등학교 1~2학년, 복설유치원 등 9개소 450여명을 대상으로 총 9회에 걸쳐 금년 12월초까지 ‘어린이 흡연예방 인형극’ 공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일에는 담양 연세어린이집, 우리네어린이집을 순회하며 ‘No! No! 자신있게 말해요’ 주제



## 강진군, 대한민국 SNS ‘대상’ 2년 연속 수상

강진군이 해럴드경제, (사)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공동 주최한 ‘제7회 대한민국 SNS 대상 시상식’에서 공공부문 기초지자체 군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016년에 이어 2년 연속 대상 수상이라 의미가 더욱 크다. 대상 시상식은 지난 19일 서울 JW 컨벤션에서 개최했다.

강진군은 세계적인 관광지로 부상한 제주도와의 협력을 통해 신규 고객을 확보하고, 평활화되는 각종 농수특산물을 도민들을 비롯한 관광객들에게 알리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농 상생 직거래장을 실시하고 있다.

해 온라인에서 원활한 소통을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벤트들을 수시로 열어 전국적으로 강진군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고품질의 다양한 콘텐츠들은 유명한 블로그 전문가로 구성된 ‘강진군 블로그기자’와 강진군 지역의 알려지지 않은 지역까지 자세히 알고 있는 강진군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SNS 서포터즈, 강진군청내의 강진을 사랑하는 지방적인 SNS기자인 ‘강진일립’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해 고품질의 콘텐츠들을 생산하고 있다.

강진=최제영 기자

사업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선정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전동평 군수는 “국비 유치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한 결과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어 영광이며 지속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암군보건소 관계자는 “월출산의 氣를 풍는 품격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의 건강지킴이로서 역할을 다 함으로써 복지영암 실현을 한층 더 앞당길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영암=강원훈 기자

## 해남농수산물 제주시 찾는다

### 26일부터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땅끝 해남의 농수특산물이 바다 건너 제주 소비자를 찾아간다.

해남군은 본격적인 김정철을 맞아 (사)겨울내추럴생산자단체협의회와 함께 26일부터 나흘간 제주시농협 하나로마트 제주점 아외특설매장에서 농수특산물 특판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김정철을 앞두고 고추가루 등 각종 김장재료를 판매하는 한편 해남배추를 이용한 김치담그기 체험과 시식회 등도 함께 펼쳐진다.

또한 쌀 생산량이 적은 제주도 특성상 직판행사마다 큰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해남쌀을 비롯해 해남고구마와 배추김치, 잡곡류, 차류, 장류, 김, 가공식품 등 100여종의 다양한 해남농수특산물을 농가 직거래를 통해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이울러 행사기간 중에는 구매 고객에게 잡곡과 고구마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해남군은 세계적인 관광지로 부상한 제주도와의 협력을 통해 신규 고객을 확보하고, 평활화되는 각종 농수특산물을 도민들을 비롯한 관광객들에게 알리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농 상생 직거래장을 실시하고 있다.

회순 이서직역

“지역언론의 바른길을 열어갑니다”

# 湖南新聞

▶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및 독자 의견  
**(062) 224-5800**

이메일 : [ihonam@naver.com](mailto:ihonam@naver.com)

팩 스 : (062)222-5548

▶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 번지 정도프라자 5층)